1. 영화 관련 이야기

① 영화에서 사랑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장면과 그 효과에 대해 적어본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영향)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의 뒷담과 결함을 보고도 결국 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함을 알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장면이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은, 서로의 단점으로 보였던 너무 활달한 성격과 조용한 성격. 특히, 그들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사건으로 보이는 서로의 가치관인 “당신은 너무 자신의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와 “떠들어야만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야” 의 장면처럼 서로의 반대의 성격이 마치 서로가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서로가 이끌린 이유 또한 서로가 달랐기에 생겼다는 점에서 사랑이란 그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② 영화에 나타난 주인공들이 느끼는 ‘사랑의 불안감’은 무엇인지,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적어본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의 성격이 가볍고 애정결핍이 심해 다른 남자랑 쉽게 자버릴까봐,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성격이 조엘에게 받아들여질 지 불안해 했다.

이 불안감은 쌓이고 쌓여 결국 터져 둘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클레멘타인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하지만, 기억을 지웠음에도 상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다시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고, 마지막에 서로의 평가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서로 들으며 서로가 헤어진 이유를 상기했다.

결국, 상처를 받으며 다시 결별을 하고자 했으나, 지워지지 않은 감정과 미련이 그들의 등을 밀어 그런 서로의 불안과 결함에도 서로의 사랑이 필요함을 느끼고 다시 결합하며 불안감을 해결하는 듯한 묘사로 끝이 났다.

③ 영화에서 ‘사랑’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영화를 보고 난 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적어본다.

영화에선 사랑이란 유토피아의 이야기처럼 완벽하게 서로 좋은 면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상대의 단점과 치부들 또한 경험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서로의 열정이 식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화에선 사랑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얻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의 결함을 보고 실망하고 기억을 지웠음에도, 서로에게 이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성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영화 감상 이후, 나의 이야기

① 영화 감상 후, 나의 사랑의 어려움에 대해 작성해본다. ~

② 나의 사랑의 불안감, 어려움 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또는 해결하는지)를 적어본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힘들을 느꼈던 건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당시에 게임에서 만났던 동갑내기 여자아이와 연이 닿아서 같이 놀게 되었고 어느샌가 연인사이가 되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이끌렸었고 영화 속 조엘처럼 삶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인생과 감정의 변곡점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여서 인지, 미래를 꿈꾸며 감정을 불태우던 시기는 지나갔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끌림이 줄어들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오랜 기간동안 그런 좋은 사람조차 평생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다.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한 감정이 도파민에서 나왔으며, 시간이 지나면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늦게 서야 깨닫고 인정했다.

그 후로도, 몇 짧은 만남이 있었지만, 과거의 기억이 붙잡아 그것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거나 오래 지속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원인은 저것 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영문도 모른채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은 돌이켜보면 꽤 외로웠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삶이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그 삶이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닌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어색하고 별 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비로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때의 생각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다시 어느 날, 우연찮게 문학, 철학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이상의 날개와 같이 무기력한 삶을 연명하며 그저 오늘 하루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삶도, 춘추전국시대에서 제자백가들이 이상과 사상을 전파하고, 멸망전의 그리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삶의 지향점을 정의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을 보고 머리속 흐린안개처럼 떠다니던 사고들이 조금씩 걷히고 보이는 듯 했다.

그 후로 꾸준히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혼자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세우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회에서 태어난 인간은 사회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 인류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 사회에 적응할 일이 없던 인간은 사랑을 겪지 않아도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의견이든 사회의 의견이든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인식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를 깨달었다고 벗어날 수 있는 종류의 앎이 아니며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앞내용을 빌리자면 도파민이 사라져 영원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단점에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임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말을 덧붙이자면, 최근 사회에서 발발하고 있는 인간 불신과 분열하는 사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앎의 단계가 낮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배신 등으로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너도 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실보다 득이 큰 개념이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사회의 분위기상 모른 채 할 수 밖에 없어 더더욱 몰려오는 혐오의 파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에 만연히 퍼진 남녀, 세대, 인종 등의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크게 터지고 있으며, 주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다 그들의 입장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의 흐름들을 나열해도 혐오는 쉽고 이해와 사랑은 너무 어려웠다.

유토피아처럼 그런 갈등이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며 거진 2년동안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은 신과 같은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광신적인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고, 이해하기 위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어디서든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에 다다른 순간, 머리가 망치에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한 상상은 예수가 자신을 종교의 상징화가 되어 죽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해 하느님이 어디서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믿음을 종교를 통해 전파했다.

어쩌면 2000년 전부터 그런 깨달음을 알고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유물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무작정 종교를 믿고 일단 사랑해라는 말은 통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그건 기만이지만 되려, 그런 이성적 사고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